

# 엠넷 '슈퍼인턴' 청년실업, 그리고 엉뚱한 상상

JYP 박진영, 제작발표회에서  
"답답해하는 젊은이들에게  
위로나 희망의 메시지  
줄 수 있는 방송 없을까 고민"

달걀 세 명이였다. K팝의 기운이 꿈틀대던 1990년대 후반, 당시 인기 가수였던 박진영(47), 유망한 작곡가였던 방시혁(47) 형 박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회계 담당 직원 한 명.

JYP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은 미미했으나 지금은 창대해졌다. 20주년을 맞은 2017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하던지 지난해 시가 총액 1조원이 넘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다. 서울 성내동에 번듯한 사옥도 마련했다. 직원은 10배 가량 많아진 300명.

'트와이스' '갯세븐' 등 세계를 호령하는 그룹부터 '스트레이키즈' 같은 주목 받는 신인 그룹, 데뷔 전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걸그룹 '있지(ITZY)' 등 소속 가수 라인업도 화려하다.

박진영은 24일 상암동에서 JYP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나름의 답을 밝혔다. "회사를 시작했을 때 제가 정말 일을 잘하면 도달할 수 있는 총액을 시가 1조원으로 평가했어요. 정말 짜임새 있게 잘하면 영업 이익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1조가 되지 않을까 했죠. 작년에 1조원을 넘기면서 이제 더 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됐죠."

자신들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거나, 지역 내에서 수익을 올리거나 가치를 찾거나, 콘텐츠 전달 패키지 방식을 바꾸거나 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 여기서 박진영은 엉뚱한 일을 벌일 수 있는 기발한 상상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날 오후 8시 첫 방송하는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슈퍼인턴'을 기획했다. 스펙을 보지 않고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의 열정, 재능 등을 검토해 JYP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3월 전 채용자가 결정됐고, 주인공은 추후 방송에서 공개한다.

지난해 '슈퍼인턴' 예고가 나간 뒤 서류 전형에만 지원자 6000여명이 몰렸다. 1차로 400명을 가려냈고, 박진영이 검토해 100여명을 통과시켰다. 면접을 통과한 13인 인턴들을 대상으로 미션을 했고, 이 중 합격자가 나오게 된다.

JYP에서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CCO)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박진영은 "제가 정말 도움을 받았던 인재분들 중 상당수는 주입식 교육 등의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에는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엉뚱한 상상을 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자 다른 회사와 채용 시스템이 엇비슷해지기 시작했다. "인사팀



박진영은 24일 상암동에서 열린 엠넷 '슈퍼인턴' 제작발표회에서 JYP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나름의 답을 밝혔다.

에서 필터링을 해야 하다 보니 학벌, 스펙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직원 분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직원이어야 하는데 필터링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준으로 스펙은 쌓지 못하더라도 영화, 드라마, 음악, 콘서트에 '미쳐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하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다.

청년 실업률 10%가 됐다는 뉴스도 박진영을 자극했다. "답답해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로나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송이 없을까 생각했죠."

박진영이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실력이 우선 크게 눈에 띄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팀워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했다.

JYP는 환경이 좋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 중 상당수 회사의 직원들은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도 방송을 통해 회사를 미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진영은 "방송에서 회사가 미화되면 직원들이 먼저 좌절감을 느낄 것이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직원들을 가장 사랑하는 회사가 되자'라고 마음 먹었어요. 영업 이익 대비 혜택을 주는 회사가 되고자 했죠. 그럼에도 과장하거나 미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소 신입 직원을 대할 기회가 없었던 박진영은 이번 방송 덕에 신났다. 신인 가수들을

**"방송에서 회사가 미화되면  
직원들이 먼저 좌절감 느낄 것  
신인의 눈동자는 아름다운 것  
슈퍼인턴 지원자들의 눈동자  
에서도 신인과 같은 것 봐 행복"**

대거 만나서 실례했던 SBS TV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와 비슷한 맥락이다.

"제가 한동안 신인들을 잘 못 만났어요. 캐스팅 담당자가 캐스팅을 해오면 트레이닝 담당자가 트레이닝을 해오죠. 이미 어느 정도 다듬어져 오는 신인들을 저는 컨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신인의 눈동자'라고 생각해요. 가수든, PD든, 기자든 어떤 직업의 누가 됐든 처음 시작하는 이들의 눈빛이 가장 아름답죠. 'K팝 스타' 신인들이 그랬고, 이번 '슈퍼인턴' 지원자들의 눈동자에서도 같은 것을 봐서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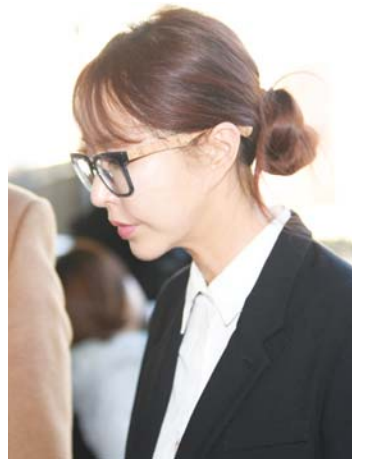
박진영은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앞장서는 편이다. 52시간 근무제를 2020년 1월부터 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슈퍼인턴' 원정우 PD는 "인턴들

이 조금 더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인사팀에서 52시간을 철저히 지켜 제어해주시더라고요. JYP 근무환경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52시간 근무제 등 건전한 업계 근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부 등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내야 할까. 이 물음에 박진영은 신중했다. "저희가 최근 돈을 벌어서 직원들을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이와 관련 대답을 하면 한쪽에서는 '배부르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하는 분들은 아직 수익이 없어 힘겹게 회사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이죠."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유동적이다. 박진영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엠넷을 운영하는 CJ ENM과 협력해서 '슈퍼인턴'을 만들고 있지만, CJ ENM도 가수를 매니지먼트하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JYP도 유튜브 등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CJ ENM과 또 다른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다. 아울러 넷플릭스, 유튜브 역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경쟁자다.

박진영은 "인터넷은 국경도 없죠. 갈수록 어마어마한 생존 경쟁이 펼쳐질 겁니다. 설레고 걱정되고 무서운 이유가 같아요. 무한 경쟁이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겁니다. JYP는 세계적으로 중간 아래 정도예요. 더 열심히 해야죠"라며 웃었다. /뉴시스



상습도박 첫 재판  
슈, "혐의 모두 인정"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슈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양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도박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슈는 지난해 12월2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고소장에는 올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틀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상습도박으로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사실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윤씨와 불법 환전업자 2명도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뉴시스

근 하 신 년

즐거운 설맞이 장수 농·특산물과 함께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수군의회**  
JANGSU COUNTY COUNCIL